다산포럼

공론의 홍수에서 살아남는 법

송혁기
고려대 교수

쥐와 이(蝨)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웠는데, 서로 우기기만 할 뿐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가 쥐에게 말했다. "너는 나보다 작으면서 왜 그렇게 우기는 게냐? 우리, 길 가는 사람들의 공론을 한번 들어 볼까?" 쥐가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한길에 죽은 시늉을 하며 벌렁 눕자 이도 그 옆에 누웠다. 길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와, 엄청 크네! 쥐가 가죽 신발만 하다니. 어이쿠! 이가 보리 항아리만 하구나." 이가 의기양양해서 쥐에게 따져 물었다. "신발이 크냐, 항아리가 크냐?" 이 말을 들은 쥐는 찍 소리도 못 했고, 결국 승리는 이에게 돌아갔다.

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쥐와 비교될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공론을 앞세운 이가 쥐를 이긴 것이다. 이 황당한 이야기는 유몽인이 조카 유활의 편지를 받고 보낸 답장에 나온다. 조카는 유몽인의 문장이 매우 뛰어난데 세상의 공론이 그렇지 않아서 관직에서 밀려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자 유몽인은 '어우야담'의 저자답게 우화 같은 이야기를 한 도막 들려준 뒤 이렇게 말했다. "쥐와 이가 누가 큰지 겨루는 일이며 그에 대한 공론 따위, 나는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지 오래다. 너도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누가 문장을 더 잘 짓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 사람들은 공론에 부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다툼이라는 게 쥐와 이의 다툼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다수의 공론이라는 것 역시 근거가 취약할 뿐이다. 그러니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전해지는 이런저런 이야기에 연연할 것 없다는 것이다.

공론(公論)은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도출한 의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유몽인이 살던 시대는 공론 정치를 표방한 유교 사회였다. 재상은 물론 왕도 공론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으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쟁이 격화되면서 당파에 따라 공론이 달랐다는 데에 있다. 어느 당파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던 유몽인은 결국 모든 당파로부터 공격당했다. 그런 그가 보기에 공론이란 참으로 취약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일 뿐이었다.

민주주의야말로 공론의 정치다. 그런데 인터넷과 각종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누구나 쉽게 공론을 들먹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저마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공론이라며 들고 나온다면, 공론은 공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공론을 주도하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진정한 공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방면으로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개인의 판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나 공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맞서는 맷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유몽인은 쥐와 이의 이야기에 이어서 동네 아이들이 호랑이 잡은 이야기를 꺼낸다. 호랑이가 한 아이를 잡아서 물어뜯으려고 입을 벌리는 찰나, 다른 아이들이 큰 몽둥이로 호랑이의 목구멍을 찔러서 죽였다. 아이들이 호랑이 꼬리를 끌고 신나게 가는데 이것을 본 어른이 놀라서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잡은 것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고는 너무 무서워서 죽은 호랑이를 내팽개친 채 모두 도망가 버렸다.

유몽인은 이 이야기 끝에, 사람들이 수백 년 전 당나라에 유종원이라는 문장가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지금 조선에 유몽인 자신이 있다는 것은 모른다고 한마디 했다. 실제의 호랑이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호랑이라는 이름에 오히려 벌벌 떤 아이들처럼, 눈앞에 살아 있는 사람의 가치는 알아보지 못하면서 귀로 전해들은 죽은 사람만 대단한 줄 아는 세태를 풍자한 것이다. 이 정도 자부심이라면 쥐와 이처럼 하찮은 상대들과 누가 큰지 다툴 일도 없고, 이른바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갖추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김하림의 차이나4.0

인구 감소 국가 중국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2017년 중국의 신생아 출생 인구는 1723만 명, 2016년에는 1786만 명이었다. 2018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국가통계국 인구취업사(司)에서 발표한 자료로, 이에 따른다면 2018년부터 중국은 인구 감소 국가의 대열로 들어선 셈이다. 소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신생아가 전년도보다 63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2018년 말 중국 대륙의 총인구는 13억 9538만 명으로(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등지의 해외 화교 제외) 2017년보다는 530만 명이 증가하였다. 2018년의 출생 인구는 1523만 명, 사망 인구는 993만 명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약 3.81%에 달했다. 2020년에 14억을 돌파한 중국 인구는 2021년에는 14억 126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48만 명이 증가했고, 출생 인구는 1062만 명이었다. 출생 인구에 비해 사망 인구가 적은 것이 인구 증가의 요인이지만, 출생 인구만 놓고 보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대륙이 세계 1위의 인구를 자랑하지만, 대략 2025~2026년을 경계로 인도가 14억 5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풍부하면서 저렴한 노동력의 뒷받침이 있었고, 세계의 시장으로 대두한 배경에도 방대한 소비 시장과 소비력을 갖춘 4억 명 정도의 중산층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인구 제 1위 국가의 힘이자 저력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구가 줄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마오저뚱을 위시한 1세대 리더층들은 인구 증가를 중시했다. 1950년대 인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인구 제한을 주장했던 베이징대 마인추 총장은 이로 인해 총장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인구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덩샤오핑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빈곤 탈출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1가정 1자녀 정책을 1980년대부터 국가 기구인 계획생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했다. 심지어 1982년에는 1자녀 정책을 공화국 헌법 52조에 규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상대적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중국 당국은 2015년에 1가정 2자녀 정책을 실시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시작했고, 2021년 5월 31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여 1가정 3자녀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통계는 보여준다. 2015년부터 실시한 1가정 2자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3자녀 정책은 아직 시간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1자녀 정책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조부모 네 명과 부모 두 명이 '어린 황제, 혹은 황비'를 떠받드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흔히 중국인들은 "중국에는 태양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집안에"라는 말로 이를 표현한다. 과보호 속에서 성장한 '독생자(1인 자녀)'는 지나친 유아독존적 사고와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이러저러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1964년에는 여성 100에 남성 103.3이었는데, 1982년에는 100 대 108.5, 2000년에는 100 대 116.86까지 벌어졌다. 결혼 적령기의 남성 약 3000만 명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2015년의 인구 구성비는 15세 미만이 17.2%, 15세에서 59세가 67.6%, 60세 이상이 15.2%(80세 이상은 1.6%)였다. 15세 미만의 구성비는 낮아질 것이고, 60세 이상의 구성비는 높아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어떤 보고서는 2050년에는 15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비율이 2.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예측이 맞다면, 2050년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5억 명을 초월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비용 뿐만 아니라, 1인 자녀가 조부모 네 명과 부모 두 명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 0.81로 세계 최하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 중국의 인구 감소를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인구가 현재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도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섰다는 점은 앞날을 전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기 고

'꽃이 된 광주 사람들'

이영화
비움박물관장

나는 가끔씩 꿈속에서 역사의 길을 걸었던 큰 사람이 된다. 우리 백성을 문화에 눈뜨게 하는 왕이 된다. 그런 한국 문화를 지키는 장군이 되기도 한다. 나 어쩌다 꿈속에서 역사의 큰일을 한다. 우리 문화의 따스함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만으로 얼어 있는 한반도를 녹여서 써레질하고, 한반도에 쳐진 철줄 따라 풀무질하며 평화를 기다린다. 가끔씩 꿈속에서 되었던 큰 사람, 어쩌다 꿈속에서 큰일 한 사람, 꿈속의 나를 위해 나는 평생을 현실 속에서 우리 백성이 던져 버린 전통문화의 씨앗을 모으고 이 나라가 끊어 버린 한국 문화의 정신줄을 잇고자 한다.

1970년대 초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 조그만 농촌마을로 시집을 왔다. 전쟁처럼 초가지붕이 헐리고 그 속에 살던 조상들이 직접 만들어 쓰던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에 밀려 버려진 것들을 지난 반백 년 동안 모으고 닦고 어루만지며 보관했다. 그러다 2016년 칠순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 가족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광주시 동구 서원문 터에 민속박물관을 세우게 되었다.

고대 광실 박물관에 무덤처럼 박제되어 있는 수준 높은 고미술품이나 골동품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한반도에서 수백 년 동안 가난을 이겨내며 기어코 살아 낸 민중들의 솜씨와 맵시, 마음씨가 세월을 머금고 빛깔로 색깔로 때깔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줄 서 있는 민속박물관이다. 한국의 부엌·안방·사랑방·마당 문화, 출산문화에서 장례문화까지 수 만 점의 민속품들을 갈무리하면서 아름다움의 자유는 계량을 초월한다는 걸 깨달았다.

솔직히 21세기 최첨단의 기술과 문명 앞에서 차고 넘치는 물질의 동요 속에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만 달려가는 숨 가쁜 현대인들에게 행여 냉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허나 그간 우리가 누렸던 호사와 기계문명에 의존한 정신적 빈곤은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회색빛 우울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어느새 기후적 재앙이 되어 지구를 병들게 한다니 말이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가 업어 가도 정신 줄만 놓지 않으면 산다고 했다. 나는 박물관에 머물고 있는 이 작고 소박한 유물을 통해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두레 정신을 삶의 으뜸으로 삼았던 한국인들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어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먹거리를 나누던 고봉밥의 인심을 현대인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때 맨손으로 쥐어 나르며 지켰던 민주주의도, 어쩌면 그 작은 주먹밥도 우리 전통문화의 힘이 아니었을까. 광주민중항쟁 42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접해 주던, 한국 역사의 고비마다 역사 발전에 기여했던 광주, 광주 사람들에게 조상들이 직접 도자기에 새긴 목단꽃과 비단에 수놓은 목단꽃을 바친다.

5월 18일은 '세계 박물관의 날'이기도 해서 오월에 피어나는 목단꽃을 통해 광주와 광주 사람들에게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박물관에 전시된 200여 점의 목단꽃으로 함께 관용의 시간을 갖고 있다. 전시 '꽃이 된 광주 사람들'전은 5월 한달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광주의 자존감으로 광주 사람의 인심으로 평화의 밥꽃이 된 주먹밥을 18일 비움박물관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해마다 아픈 오월을 달래고 어루만지고 승화시키는 데 힘쓰려 한다.

아무리 거친 문명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낮게 낮게 자리잡고 문명의 번들거림을 휘감고 도는 한국 문화의 텃밭으로, 기다림의 언덕으로, 그리움의 동산으로 한국 문화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피어나는 평화의 들꽃이 되고 지구촌을 살리는 사랑의 묘약이 되면 더 좋을 듯하다.

한옥의 대청마루에 서 있는 쌀뒤주의 조형미는 한국 어머니의 품속처럼 든든함으로 박물관을 지키고 있다. 어디 쌀뒤주뿐이랴. 한국 보자기의 단순성과 실용성. 아기를 감싸주던 포대기의 엄숙함. 한국 여인의 허리를 감싸주던 한복 치마의 우아함. 치성의 공간에 걸려 있는 무쇠솥의 당당함. 그 집 장맛을 보면 그 집안 품격을 알 수 있다는 장독대의 반짝이는 아름다움까지.

나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아름다움의 반란을 꿈꿀 것이다.

社 說

'깜깜이' 교육감 선거 유권자 관심 절실하다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도입한 교육감 선거에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에서 다섯 명, 전남에서는 세 명의 교육감 후보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이들의 이름이나 공약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깜깜이 선거'를 넘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전남도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행정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교육 예산을 다룬다. 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기준 2조 5920억 원, 전남은 4조 3300억 원에 달한다. 조례와 규칙 제정은 물론 학교 설립, 이전·폐교 권한까지도 교육감이 행사한다. '교육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광주·전라권 응답자의 55.7%가 '관심 있다'고 답한 반면 44.3%는 '관심 없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관심도는 지방의원(58.4%)보다 낮았다. 또한 광주·전남 유권자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교육감 후보의 경우 유권자의 민주당 선호 정서를 겨냥해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한다.

교육감 선거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막중한 일이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아이들 교육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출마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관위도 토론회 등을 통해 인물 및 정책 검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깜깜이 선거'로 뽑힌 교육감에게 맡긴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공법단체 전환 3단체 5·18 계승 구심점 돼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5월 단체들의 공법단체 전환이 마무리됐다. 국가보훈처에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최근 박해숙 회장을 선출, 보훈처의 승인을 받고 지난 13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이종수)는 3월 4일 각각 법원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운영됐던 5·18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공법단체가 되면 5·18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는 물론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광주시의 기념사업 보조금에 의존하던 수준을 넘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단체의 재정 개선과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5월 단체의 공법단체화는 5·18 유공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숙원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5·18 정신 계승의 주체로 출발하겠다"며 통합과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단체 간 주도권 다툼, 이해관계에 따른 내부 갈등이 반복되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높았다.

지난해 1월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법단체 전환이 탄력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5월 단체들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거듭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5·18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한국 민주화의 초석으로서 광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모두의 것이 돼야 한다. 따라서 5월 단체들은 이제 5·18 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미완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오월 시민 일기장

"5월 19일(월). 도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난 교정소에도 못가고 벌벌 떨었다. 젊은 언니 오빠들을 잡아서 때린다는 말을 듣고 공수부대 아저씨들이 잔인한 것 같았다…."(광주 동산초등학교 6학년 김현경)

"5월 20일(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도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공수부대가 감히 학생이나 시민을 무차별 살해한다는 무서운 소식들이었다. 한결같이 도민의 입장에서 분개하고 있었다…."(목포시 거주 조한금)

"다만 밖의 시위 군중들이 불빛이 보인다는 트집, 데모에 합세하지 않는다는 트집 등으로 유리창을 박살낸다는 협박에 못 이겨 불을 끄게 하고 작업을 대강 마무리짓게 하고 나는 컴컴한 전신 숙직실에 오한에 덜덜 떨고 오직 주의 기도문으로 잠을 청했다…."(광주우체국 통신과장 조한유)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층 상설 전시실에는 1980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이나 여고생, 주부, 성직자, 체신 공무원 등이 쓴 일기장 여러 권이 전시돼 있다. 3층 영상실에서는 시민 열 명의 '오월 일기' 낭독 영상물을 볼 수 있다. 당시 일기를 썼던 시민이 담담하게 읽어 내려가는 42년 전 일기는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의 잔악성을 보았는가? 쓰러져가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는가? 시민군대(시민군)에게 호응하는 모든 광주시민들을 보았는가?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아는가? …."(주소연)

마흔 두 번째 맞는 오월이다. '80년 5월'을 직접 겪은 시민들은 일기장에 그날 목격한 상황과 느낀 생각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현경 양의 5월 18일 일기 제목은 '무서움', 19일 제목은 '공포'였다.

평범한 시민들이 남긴 사적인 일기는 역사적 기록이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보수 극우 인사들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써 내려간 일기장 속에 '80년 5월'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 있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